

전남도, 미래전략산업 국비 2658억 확보... 60개 사업 반영

조선·석유화학·철강 등에 1159억 신약 시장·초소형 전기차 등 탄력 산·학·연 협력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지난 5월 16일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누리호 1,2단과 3단의 결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의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전남도의 미래 전략산업 국비 확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미래 전략산업 국비 2658억원이 반영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올해 미래 전략산업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은 2023년 예산안보다 517억원(24%) 증가했다. 신규 12개 사업(406억원)을 포함해 총 60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먼저 조선, 석유화학,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은 국비 1159억원(총사업비 8319억원)으로 전통 주력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내연성 생분해성

플라스틱 복합소재·친환경 부품화 개발(12억5000만원), 산단형 초임계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5억), 스마트 방폭·화재안전 인프라 구축(35억) 등이다. 우주, 바이오,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산업은 국비 1499억원(총사업비 1조 5162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산업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약 시장 유망 의약품인 펩타이드 치료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기술 개발(14억)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68억) 등도 반영돼 첨단바이오 글로벌 거점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초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도 탄력이 기대된다.

초소형 전기차 플랫폼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10억), 실제 도로 주행

시험을 통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낼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21억) 등이 반영됐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454억),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151억), 그랜드 ICT 연구센터 사업(20억) 등이 반영돼 산업 인재 양성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미반영 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전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사업들이 다수 반영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밀양시는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를 오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하며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산 경우,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에서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납부한 이자(최대 75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거주하며, 5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로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밀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진주시

진주~수서행 SRT 첫 출발

경남도와 진주시는 지난 1일 진주와 서울 강남구 수서를 잇는 SRT고속열차 첫 출발을 알렸다. 진주~수서행 SRT는 하루 왕복 2회 총 4회 운행되며, 지난 8월 11일 예매를 시작했다. 이 노선은 진주역을 출발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진영역, 밀양역 등 도내 6개 역을 경유해 서울 강남구 수서까지 잇게 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앞으로도 해당 노선의 운행 횟수 증편을 통해 수도권에 접근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남 지역에 철도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경남)=이도식 기자

하동군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 재개장

경남 하동군이 악양면 평산리 소재 전통문화체험형의 한옥숙박시설을 4일 재개장한다.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은 2020년3월~2023년5월 민간에 위탁 운영됐으나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해 직영으로 재개장을 하게 됐다.

평사리 풍경을 그대로 담은 고품격 한옥숙박시설은 6동 10실로 이뤄졌으며, 편안한 내부 인테리어와 고급 침구, 방·거실·주방 등을 두루 갖춰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은 재개장일로부터 네이버에서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을 검색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주시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

경주에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가 조성된다. 경북도는 연구 기반 강화를 위해 동경주 지역에 추진 중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중수로해체기술원을 바탕으로 원자력 공동캠퍼스 등 차세대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을 유치하고, 한국재료연구원과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등 국책 연구기관 분원도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차세대 원자력산업 및 정주기반 강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를 앞장서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도, 미래 100년 주춧돌 ‘동부청사’ 개청

4개국 13개 부서 체제 갖춰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선 전남도 동부청사가 지난 1일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동부시대 개막을 알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개청식에서 글로벌 대전환 시대, 전남 미래 100년 대도약의 주춧돌이 될 동부청사의 비전을 선포하고 200만 도민과 함께 화합과 융성의 전남 완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동부청사는 동부권 도민 행정편의를 위해 2005년 10월21일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로 출발했다. 이후 2008년 8월1일 동부지역본부(1국 6개 부서)로 개편됐다.

늘어나는 기업 투자유치와 문화신

산업 확대 등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현재 4개국 13개 부서의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청사 완공과 부서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 포스코, 나로우주센터 등 주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동부청사가 지역의 미래첨단산업 등 핵심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동부청사의 가장 큰 확대 설립 목적은 현장의 접근성 향상이다.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따뜻한 소통으로 도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영양군, 서울광장서 ‘영양고추’ 홍보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

‘2023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영양고추는 언제나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금년도 행사는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여 영양고추의 옹고 정직한 맛을 제대로 전하고자 알차고 내실 있는 짜임새로 도시민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며, 농특산물 통합마케팅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무대행사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전시체험공간 운영 등 선택과 집중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18일 KBS 6시 내고향 ‘영양군 특집생방송’을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하며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전시관, 시민참여 체험



2023영양고추HOT페스티벌 사전홍보 사진.

행사, 영양고추 테마동산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절단인 영양고추아가씨들이 현장을 누비며 판매활동에 앞장서고 시민들을 위한 홍보활동과 화려한 퍼포먼스는 축제장을 찾은 도시민들에게 행사의 품격을 드높일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는 지난 31일 제9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공연예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뉴시스

부산시, 20 대표하는 대규모 마켓 등 ‘최대 공연예술 도시’ 향한 발판 마련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정책 활동기반·생태계 자생력 강화

부산시가 아시아 최대 공연예술도시를 목표로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대규모 공연예술마켓 조성을 비롯해 공연 유통 촉진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9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최대 공연예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유럽·미주와 달리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마켓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대규모 공연예술 마켓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공연예술인 활동기반 및 공연예술 생태계 자생력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공연유통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시는 공연예술 유통 활성화 정책의 3대 중점 추진과제로 ▲대규모 공연예술마켓 조성 ▲공연시장 수요 및 공급 기능 강화 ▲공연 유통 촉진을 꼽았다.

/부산=김영찬 기자 metrobusan3@

광양시, 추석황금연휴 ‘광양여행코스’ 선봬

구봉산전망대·배알도 섬정원 등

광양시가 천고마비의 계절로 들어서는 관문이자 민족대명절인 추석 황금연휴를 뜻깊게 보낼 수 있는 9월 광양여행코스를 내놨다.

광양시는 구봉산전망대, 배알도 섬정원 등 야경 및 달맞이 명소와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전남도립미술관, 망덕포구 등을 중심으로 반일코스,

당일코스, 1박 2일코스를 구성했다. 반일코스 ‘광양에서 한나절’은 김시식시~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운동주 유교 보존 정병욱 가옥 & 운동주 시 정원) 등을 잇는 코스다.

광양에서 하루를 보내는 당일코스는 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예술창고~구봉산전망대~이순신대교~배알도 섬 정원~망덕포구 등을 투어한다.

/광양(전남)=전정신 기자 spirit@